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11	07. 18	07. 25
대 표 기 도	유미영 집사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유미영 집사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성경읽기 - 역사서(수~에) 1일 5장 읽기 7월 22일(60일)까지
2. 교회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 영성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3. 번이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 교회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00장 다같이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왕하 1 : 9 - 16 (구p560) 정용현 안수집사
 (2.Könige 1:9~16)
 설 교 Predigt 불의 상징적 의미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03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유미영 집사

인형의 방으로 오세요

뉴욕 Manhattan 중심에 위치한 Rusk Institute 9층에 있는 Howard Rusk 박사 집무실에는 온 벽면이 인형으로 가득 찬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러스크 박사에게 도움을 받은 전 세계 수많은 재활 환자들이 그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보낸 인형들을 모아 놓은 곳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재활의학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깁스와 부목에 고정되어 있는 몸으로 비서에게 러스크 박사를 만나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졸랐습니다. 마침내 한 달 만에 러스크 박사의 인형의 방에서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힘차게 잡으면서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말했습니다.

체조선수로 유명했던 내가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터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somersault(180도 전환 기술)를 하다가 목뼈를 부러뜨린 것은 분명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인형의 방에서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체조라는 우상에 목숨 걸고 금메달 하나 바라보며 부모님 속을 썩이는 이승복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이승복,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서로 기대며 어려운 장애물을 씩씩하게 뛰어넘는 이승복을 보고 싶어서 나를 다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휠체어 탄 재활의학 전문의라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 이승복
(한국계 미국 재활의학 의사)**

***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식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에 속한 것이다. - John Wesley -**